

Japan



원제 《뇌를 단련하다》
 도쿄대 강의 〈인간의 현재①〉
 저자 다치바나 다카시
 출판사新潮社

지의 거장, 다치바나 다카시의 도쿄대 강의를 책으로 만난다!

김장환_청어람미디어 편집부

2001년의 한여름, 잠시 출판현장에서 한 발 물러나 출판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만 5년 넘게 몸담았던 고치(출판사)에서 변태(새로운 일터)를 꿈꾸고 있을 때였다. 그때 당시 청어람미디어의 편집장이었던 후배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저녁에 출판사로 마실 나오지 않겠느냐, 나온다면 소주 한 잔은 사겠노라고. 심심하던 차라 흔쾌히 제안에 응했다. 그때 나는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가 막 산통을 겪으며 세상에 나올 채비를 하던 장면을 목격했다. 그러니까 청어람미디어는 《나는 이런 책을 읽어 왔다》의 산실産室이었던 셈이다.

후배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어때요? 뭐가? 얼마나 나갈까요? 글썸다... 속셈으로는 한 3천부나 나갈까 싶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실망할까봐 짐짓 인심을 쓰듯, 많이 나가면 5천부는 안 나가겠냐고 덕담(?)을 건넸다. 시무룩해진 후배는 약속대로 소주를 한잔 샀다. 아니 잔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샀다. 지금 생각하면, 그 잔수만큼 허탈감이 컸지 싶다.

가를 들머리, 드디어 책이 나왔다. 나는 내 좁은 식견과 안목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리고 후배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와 함께 깊이 사과했다. 지금도 가끔 내 짧은 안목에 대해 반성의 거울로 삼으며 그 책을 톡톡히 들춘다.

그로부터 1년 후, 지금으로부터도 1년 전부터 청어람미디어에서 책을 만든다. 질긴 인연이 청어람미디어로 나를 이끈 셈이다. 이곳에서 다치바나 다카시의 책을 벌써 3종을 만들었고, 다시 《뇌를 단련하다》(가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쯤 되면 다치바나 다카시와의 인연도 만만찮은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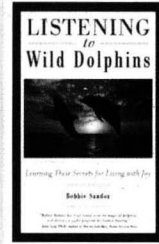
《도쿄대생은 바보가 되었는가》, 《21세기 지의 도전》 등에서 이미 저널리스트로서의 그의 진면모를 보았지만, 이번 책은 아

주 특별하다. '도쿄대 강의 〈인간의 현재①〉'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뇌를 단련하다》는 도쿄대의 교양학부생을 대상으로 1년간 강의한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것. 도쿄대 교양학부의 강의 수준을 엿볼 수 있는 기회이자, 다치바나 다카시의 육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이다.

강의주제도 만만찮다. 강의요강에서 밝힌 내용은 이렇다.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려는가? 거시적으로 본 인류사의 총괄. 자연에서의 인간의 위상. 에콜로지 와 이코노미. 폴리서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역사. 인류사회의 다양한 과탄 요인. 종말론의 가능성과 그 돌파의 가능성. 테크놀로지의 한계. 현대 지식사회의 변모와 위기. 패러다임의 전환. 자연은 어느 정도까지 경영이 가능한가? 삶의 문제. 윤리학의 재구축. 대학은 무엇을 배우는 곳인가?"

강의내용은 우주, 생명, 진화, 컴퓨터, 철학, 문학, 종교, 역사, 사회 등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며, 또한 그 시대를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실제강의와 같이 많은 시각자료와 꼼꼼한 주석과 팀을 배치하고 있어 이해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이 우리에게, 특히나 우리의 대학생과 지성인들에게 특별한 까닭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즉 지의 폭발 시대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살아갈 우리에게 기왕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대학은 어떤 공간이며 대학생은 무엇을 준비하는 존재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소위 리버럴 아트라 불리는 교양을 획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은 어떠한 것들인지를 마치 강의실에 앉아서 강의를 듣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감히 말하건대, 편협한 인식의 틀 안에서 안주했던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들의 인식 지평을 무한히 확대시켜 줄 만한 책이다. **한겨레**



원제 돌고래에게서 배우다
Listening to Wild Dolphins
저자 바비산도스 Bobbie Sandoz
출판사 Beyond Words

수평선을 휘저으며 춤추는 돌고래처럼 인생을 기쁘게 사는 법

이후남_ 넥서스BOOKS 편집부

요즘 서점가는 틱낫한, 달라이 라마 등 우리 시대의 영적인 스승들의 가르침을 소개한 책들이 평대를 점유하고 있다. 확고한 현실세계에 사는 우리가 어찌서 영적세계의 지혜로운 존재들과의 대화에 그토록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일까?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나 지능이 뛰어난 존재를 만나기 위해 우주를 탐사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들과 만날까 두려워한다. 오히려 인간보다 지능이 뛰어나고 훌륭한 안내자가 존재한다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서둘러 그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를 감추어버린다. 그리고는 존재에 대한 갈망과 두려움의 딜레마에 빠져든다.

만약 우리가 이 지구의 바다 속에서 실제로 그런 존재를 만날 수 있다면? 그들의 훌륭한 능력을 무시하고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에 관해 더 많이 배우려고 할 것인가? 그 대답은 《돌고래에게서 배우다》에서 야생 돌고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들려준 이야기 속에 있다. 같은 행성에 살고 있지만 돌고래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신비한 존재다. 그러나 돌고래에 대한 연구는 하나같이 고래의 신체적 특징, 이동 경로, 식습관, 짝짓기 행동을 관찰하느라 그들의 영적인 특성은 간과해 왔다.

10년 전, 저자는 남편과 갈등을 겪을 무렵, 호텔 풀장에 있는 돌고래의 장난기 어린 태도에 웃음을 터뜨리며 뜻밖의 위안을 얻고 놀라운 치유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 뒤 그녀는 야생 돌고래를 만나기 위해 남편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지만, 번번이 남편과 말다툼만 벌이고 돌고래와의 만남은 이루지 못한다. 그 이유를 말다툼 때문이라고 생각한 그들은 분노의 감정을 접고 대신 평화로운 마음으로 바다에 나갔고, 드디어 돌고래와 처음 만나는 기쁨을 누린다. 돌고래는 고도의 지능과 사고력, 판단력을 지니고 있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섬세하고 예민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은 외면하지만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에게는 주저함이 없다.

돌고래는 모든 존재를 즐겁고 친절한 눈빛으로 대한다. 기쁨으로 온몸을 떨며 춤추는 돌고래는 우리에게 사랑, 조화,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의 열쇠를 깨닫게 한다. 돌고래는 여섯 가지 재능이 서로 어우러져 특유의 매력과 다정한 성품을 드러낸다. 그들의 재능을 깨닫고 기꺼이 배우다면 우리 인간도 돌고래만큼 고귀한 영적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자유와 기쁨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는 '무한한 배움'이다. 돌고래는 인간들에게 끝없는 우정과 친절을 베푼다. 사람을 보면, 옛 친구를 만난 듯 공중으로 뛰어 올라 꼬리를 흔들고 긴 눈맞춤을 나눈다. 가끔씩은 아기 돌고래를 자랑스레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저자는 돌고래와 함께 헤엄치고 대화를 나누면서 10년간 우정을 쌓아왔다. 하와이, 호주, 통가, 멕시코, 바하마 제도, 비미니섬, 도미니카 공화국, 카리브 해, 플로리다 해협의 바다 속에서 2천여 시간, 배 위에서 5백여 시간 동안 돌고래와 즐거운 만남을 누려왔다. 돌고래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찰하고 간파한 것들을 매일 기록하고, 이런 활동을 통해 몇 가지 매혹적인 교훈과 통찰력을 얻어냈다.

돌고래는 우리에게 세상을 기쁘고 조화롭게 살기 위한 비밀을 귀뜸해 준다. 그들의 말에 조용히 귀기울인다면, 우리 역시 더 높은 자아로서 행동하고 꿈꾸던 세상을 구현하며, 그들이 수평선을 휘저으며 신나게 춤추는 것과 똑같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법을 깨닫게 되리라. ☞



원제 Comment parler d'art aux enfants
 저자 프랑수아즈 바르브-갈
 출판사 ADAM BIRO
 출간년도 2002년

30점의 명화에 대한 명쾌하고 유쾌한 해답

최혜진_예담출판사 편집부

과거 사람들은 왜 초상화를 그렸을까? 그림값이 비싼 이유는? 이 그림은 무엇을 표현하려는 것인가? 작품을 완성하는 데는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이 그림을 보고 왜 아름답다고 하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모두가 경탄하는 그림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어려운 미술도 솔직한 질문을 통해 접근하면 그림 감상이 한결 쉬워진다. 30점의 명화가 전하는 다채로운 이야기와 흥미진진한 물음들에 명쾌하면서도 유쾌한 해답을 제시하는 이 책은 어느 미술책과는 다른 기발함이 묻어난다. 그림 속의 보잘 것 없는 사물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들춰내며 그림을 설명하는 방식은 다소 엉뚱하게도 보이지만 실상의 결과물은 제법 진지하고 흥미롭다. 어린이들에게 그림을 설명해 주고 싶지만 막상 아이들의 뜬금없는 물음에 난감해지는 어른들, 그리고 순수하게 그림 속으로 빠져들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미술책이기도 하다. 지루하고 딱딱한 설명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간단한 질문들로 작품을 설명함으로써 그림을 그린 화가가 살았던 시대와 문화를 충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이 책의 강점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모나리자>에 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질문1** 그림 속의 여인은 누구인가? 500년 전 이탈리아에 살았던 리자라는 이름의 여인으로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모나리자라 불렀다. 이는 리자 부인(마담 리자)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프랑스에서는 모나리자를 라 조콘드 La Joconde라 부르는데 이는 이탈리아 성이 델 조콘도 del Giocondo였기 때문이다. **질문2**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림을 그릴 때 지나치게 많은 색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강한 색은 더욱 꺼려했다. 그는 시각적으로 피로하지 않은 부드러운 이미지를 선호했고 그 때문에 그림 속 이

미지들은 하나에서 다른 사물로 미끄러지듯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질문3**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사람의 형상을 이토록 실감나게, 마치 살아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린 것은 이 초상화가 처음이었기 때문. 경직된 특징만으로 그림을 그린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모나 리자에게 지을 듯 말 듯한 미소를 부여했다. 모든 것이 고요한 가운데 여인 주위로 빛이 변화를 거듭한다. 이처럼 흐르는 시간을 그려내는 화가의 이미지는 당시로서는 놀랄 만한 일이었다. **질문4** 모나 리자가 대머리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머리라니! 천만의 말씀. 모나 리자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마 위쪽의 머리를 뽑는 것이 유행이었다. 넓은 이마는 흰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구나.

그 밖에도 그림의 배경이 어두운 이유와 사람들이 모나 리자를 미인이라 말하는 까닭, 밝게 표현된 모나 리자의 손, 그리고 이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 빈치가 살았던 당시에도 큰 성공을 거두었는지에 대해 질문한다. 더불어 사물을 세세하게 묘사하지 않으므로써 오브제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스푸마토 기법까지 다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독특한 표현법은 안개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우리가 보는 것 이상으로 사물을 상상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다 빈치 외에도 안 반 아이크, 보티첼리, 모네, 드가, 고흐, 샤갈, 몬드리안, 피카소를 비롯해 폴록, 바스키야 등 같은 현대 화가들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풍부하게 다루고 있다. 예술사 연표나 독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문적인 미술 용어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색다른 그림책은 지식이 아닌 이미지에 우선적으로 접근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여러 질문과 답을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그림 언어의 숨은 의미를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당장이라도 미술관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